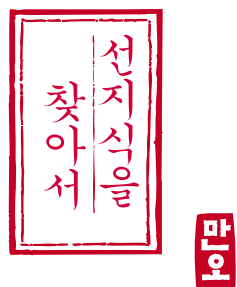


만오 스님은 전남 함평에서 태어났다. 동진출가 하여 15세 때 효봉 스님에게 사미계를 받았고 상원사 한암 스님 회상을 찾아갔으나 나이가 어려 선방에 들어갈 수 없어 허드렛일을 했다. 스님은 "뭐 한 일도 없이 세월만 흘렀고 부처님께 죄를 지어 염불로 참회하는 사람이 살아 온 이야기를 할 게 뭐 있느냐"며 한사코 이력을 밝히지 않았다. 12년 전 건봉사로 올 때 이미 지난 세월을 다 버리고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성불로 가든 안 가든 모든 것 자신이 할 일”



만오 스님 (건봉사 염불원장)



하늘이 무거웠다. 후덥지근했다. 장마 이후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설악산도 울어뜰은 원 없이 비를 맞았다. 진부령을 넘어 울창한 육산의 속살을 헤집듯 건봉사(乾鳳寺) 가는 길은 구불구불하고 오르락내리락 했다. 짙어가는 말끔했다. 좌측으로 부도밭이 보이는 곳에서 짙 짙새가 물었다. 주자장이 반듯하게 만들어졌고 경내를 가르는 계곡물 소리가 몸에 감기는 더위를 씻어주고도 남았다.

일주문인 불이문(不二門)의 기둥에는 금강저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번뇌를 부수는 무기, 보리심을 상징하는 금강저를 보는 순간부터 마음에 금강저가 떠다니는 것이다. 이것으로 절 안에 들어갈 준비는 끝났다. 몸통에 나무아미타불이란 글자를 큼직하게 새기고 머리에 돌로 리를 이고 있는 돌기둥, 잦은 비로 물이 불어 탕탕하게 흐르는 계곡의 양끝을 무지개처럼 이어 주는 능과, 형체가 심하게 마모된 돌거북 한 마리, 10바라밀이 새겨진 돌기둥. 건봉사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유적들이다.

그러나 건봉사의 정구역 역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보물은 따로 있다. 서기 758년에 발간 화상이 절을 증진하고 염불만일회를 열었는데 31명의 스님과 재가신도 1820명이 동참했다고 한다. 그 많은 대중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1만일, 그러니까 27년 반을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며 살았다. 우리나라 염불만일회의 첫 결사였다. 또 하나의 보물은 부처님의 진신차이사리다. 입진왜란 당시 왜군이 통도사의 진신사리를 약탈해 갔고 사명 대사가 되찾아 일부를 건봉사로 모신 것이다.

지난 12년간 이 두 보물을 지켜 온 만오(晩悟·82) 스님. 사무실에서 스님의 방을 돌으니 "요사채를 뒤로 돌아 맨 끝에 있는 방"이라고 일러준다. 귀청을 흐드는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요사채를 오른쪽으로 돌아서다가 아, 곁을이 꼭 멈춰진다. 계곡 물소리도 때때 쓰르라미 소리도 바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노스님 한 분이 쪽마루에 앉은 방식을 깔고 단정하게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일 뿐.

침을 꿀꺽 삼키며 서너 발자국을 다가간다 그냥 침묵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왼손으로 천천히 일이 굶은 염주를 끌고 입술은 하얗게 얼어붙는다. '나무아미타불'이란 소리가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일주문에서 금강저가 새겨진 마음 한 구석에서 '나무아미타불' 염불소리가 들렸다. 스님이 앉아 있는 풍경 뒤로는 건봉산의 능선이 푸른 기운으로 한껏 부풀어 올라 있다. 그 너머는 군사작전지역이고 가까운 곳

이 북한 땅이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조심스런 인사에 천천히 몸을 돌리는 만오 스님. 건봉사의 염불만일 결사 정신은 스님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염불이 이어지게 함으로써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스님은 하루 3번 북을 두드리며 힘차게 나무아미타불을 염한다. 건봉사는 10여 년 전부터 모자 모양의 요사채 가운데를 염불원으로 고쳐 염불결사 도량의 면모를 지키고 있다. 염불원에 부처님 진신차이사리를 모셔 누구나 절하고 진경하게 할 수 있다.

-매 순간 이렇게 염불을 하시나요?

"그렇게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지. 원력은 커도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하고 정신이 혼미해서 자주 막혀버려. 입에서 귀에서 오장육부에서 사뭇물 소리같이 염불

하루에 3번 12년 동안 염불 정진 원력 내 매 순간 온 마음으로 해아 염불은 깨달음 얻는 가장 안전한 배 좋은 인연 만났다는 용기로 타세요

소리가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그렇게 염불삼매에 빠진 적은 없으신가요?

"글쎄, 있다고 있는 것이고 없다고 없는 것일까? 염불은 있고 없는 곳에 있지 않아. 금강저 같은 신심과 원력이 없으면 안 되는 수행이지. 신심과 원력이 오매불망으로 이어지면 염불삼매에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

-스님의 하루 일과가 궁금합니다.

"별걸 다 못네. 12년 전부터 내 하루는 똑같아. 처음 여덟 오니 법천 노스님이 계셨는데 아주 염불을 지극하게 하셨어. 그 스님께 복치며 염불하는 법을 배웠지. 처음 법당에서 염불을 했는데 염불원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예불하고 염불을 함께 하고 있지. 새벽예불과 사시예불 뒤에 북을 치며 염불을 하고 저녁 예불 뒤에도 하지. 원래 염불은 하루 네 차례 나눠 하는 게 전통인데 여기서서 오후 염불을 안 해. 사리진전 하는 불자들이 오니까 염불대신 안해를 하지. 예불과 염불 하는 시간

그리고 방문객들을 위한 간단한 설명 시간 그 외엔 혼자 있게 되고 늘 염불을 하지."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바람도 일었다. 푸른 산등성이가 엉덩이를 들쭉이는 듯했다. 이내 빗줄기가 굵어졌다.

-염불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요?

"그냥 노는 입에 염불하면 돼. (껄껄 웃음) 노는 입에 염불하라는 말은 한 순간도 놓치지 말고 염불하란 말이야. 정신이 없이 안 되지. 염불은 온 마음을 모아 하는 것이지. 매순간 마음을 모아 염불하고, 일을 할 때도 염불하듯 해야 해. 그러면 일하면서도 염불이 되거든. 우선 신심을 굳히고 원력을 내야 해."

-스님은 어떤 원력을 내셨습니까?

"나는 오직 한 가지야. 금세로 성불은 못해도 극락세계에는 가고 싶다는 것이지. 일심으로 염불하면 일만 명이라도 다 왕생한다고 했거든. 가장 쉽고 안전한 빠른 수행이 염불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부처님의 48가지 큰 서원이 중생들의 극락왕생의 길에 닿아 있기 때문이야."

스님은 요즘 <묘법연화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했다. 부처님의 최상승 법문이라고 받들어지는 <묘법연화경>을 읽으며 독경의 즐거움을 느낀다고 했다. 그렇지만 한 편으로는 "일심염불은 아득하고 나날이 법안 축내는 것 같아 부처님께 한없는 죄를 짓고 있다"며 하품하생이라도 극락에 가기만 염원할 뿐이라고 했다.

만오 스님은 죽죽 사선을 그어대는 빗줄기를 응시하며 냇물처럼 힘 있는 목소리로 글을 읽듯 말했다.

"결국 자신의 일이야. 경전에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 있어도 배워 행하지 않으면 불초시계에 불과하고, 성불의 길이 아무리 넓어도 자신이 가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길이지. 태평양을 건너 미국을 가는데 헤엄쳐서 가는 것과 배를 타고 가는 것 중 어느 게 빠르고 안전한 건지? 배를 타야겠지? 염불이 배야. 모든 수행이 배가 되겠지만 염불은 그 중에서도 빠르고 안전한 최고의 배야. 그러니 그 배를 타야지. 자기가 안타면 태평양은 누가 건너겠어? 하루가 금강고 매일이 바빠. 좋은 배를 만났거든 배를 올라타는 용기와 지혜를 가져야 해."

우산을 받쳐 들고 계곡을 건너다가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만오 스님이 아까 그 자리에 그 자세로 앉아 있었다. 다시 귀찮게 염불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일주문을 나올 때는 가운데를 피해 걸으며 돌아 나왔다. 마음속에 새겨진 금강저와 염불소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세계최초 초소형 경전 순금나노 불경금책

순금의 기운을 직접 만지며 느낄 수 있는 불경금책, 소병풍, 달마, 연꽃액자, 옴마니반메홍축자 등

순금경전규격
(소) 3.5 x 5cm
(중) 5 x 7cm
(대) 6.8 x 9.7cm
· 반야심경(소, 중)
· 천수경(중, 대)
· 관세음보살부도(중, 대)
· 묘법연화경(중, 대)
· 금강경(소, 중, 대)
· 지장보살본원경(중)

소형금병풍 규격: 74cm x 74cm
최고급 소형 금병풍은 소병풍,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용 소정용으로 최고이며 기도장전, 영가현도, 재례용품 여러 용도로 사용됩니다.

달마역자
(중) 35 x 50cm
(대) 42 x 65cm
금담야, 연꽃액자, 옴마니반메홍축자 등은 스님 및 각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불사용으로도 널리 사용됩니다. (불사용으로 단체주문시 크기별 제작가능)

연꽃액자
26 x 28cm
60 x 20cm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어 세계생생 선근의 인연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로 주문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기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항로, 흑단목탁

흑단목108염주, 단주
8mm 55,000원
10mm 65,000원
12mm 85,000원
가격이 저렴한 흑단목염주, 흑단목항로, 흑단목탁은 행사(보시)용으로 수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흑단목108염주, 단주
(대) 26 x 16 x 16cm 155,000원
(소) 20 x 12 x 12cm 9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며 입에서 향이 풍겨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됩니다.

1등급 흑단목탁
지름 6~6.5cm
가게 95,000원
소형이므로 스님 만행용으로 최고입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윤곽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스님 및 각가정에 개인소장으로 최고입니다.
* 제품 특성상 수중에 품으로 크기 및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육신비함을 드립니다. 녹색의 금강염주는 내세에 무량한 생명과 풍요, 행운, 번영, 장수, 건강, 명예와 왕생을 상징하는 부처님께서 주신 영물을 의미하는 파도마 염주입니다. 진밤의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변에서 생산되는 금강염주는 품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고 동서남원적의선, 높은음운이 발산하며 북의 북을 불려 27가지 소원이 꼭 98%의 성공률로 영원토록 색상이 바뀌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1SET(3EA) 245,000원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금강염주, 금강염주는 1500°C 이상에서도 녹거나 타지 않으며 강력한 힘과 93%의 원적의선, 높은음운이 발산하며 98%의 성공률로 영원토록 색상이 바뀌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불교용품점을 운영하시는 분 환영 소자본으로도 대리점 가능 무점포시 : 불심이 강하며 차량소유자로서 활동하시는 분